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사진 뉴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에서 개최한 교사연수회 및 교사사은회가 4월 1일 합킨턴 소재 보스턴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보스톤 커뮤니티칼리지 나 이, 이민신분 상관없이 무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든 보스톤 시민들은 6개의 커뮤니티칼리지에서 나이, 소득 그리고 이민신분에 무료로 수업을 제공한다.

미셸 우 보스톤시장은 4백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기존의 무료커뮤니티칼리지플랜(TFCC)에 투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시민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고소득직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무료커뮤니티칼리지플랜(TFCC)에 따르면 보스톤 시민들은 3년동안 보스톤내의 6개의 커뮤니티칼리지에 무료로 등록해 준학사(associate's degree) 프로그램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올 가을부터 이 프로그램은 시작되며 학기당 \$250의 학비 보조를 비롯해 소득이 낮은 학생들에게 최대 \$2500의 빛 구제 비용까지 지급한다.

보스톤은 또한 이민자 >>7면으로 계속

'Ladies'가 뭐길래, 이메일에 썼다가 이스트햄튼 교육감직 박탈

MA 한 학교위, '레이디스' 칭한 교육감 후보 채용 박탈 이스트 햄튼 학교위의 결정에 주민들 반발 논란 확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한 학교의 차기 교육감(superintendent)으로 낙점했던 후보가 이메일에서 여성

(women)을 "레이디스(ladies)"라 썼다가 채용이 박탈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을 낳고 있다. 학교위는 이를 마이크로어그레션(mi-

croaggression)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스트햄튼(Easthampton, MA) 학교위는 집행위 회의를 마친 30일 비토 패론 박사의 채용을 취소했다. 일주일 전 학교위는 4-3의 투표로 전 이스트햄튼 하이스쿨 교장이었던 비토 패론 4-3의 투표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었다.

학교위의 결정은 패론 >>6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협의회 교사연수회 장기근속 및 우수교사 표창

30년 장기근속 윤미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는 4월 1일 합킨턴에 위치한 보스톤 장로교회에서 2023년도 교사 연수회 및 사은회를 개최해 30년을 근속한 윤미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를 비롯한 장기 근속교사, 우수교사 등을 표창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

드아일랜드, 버몬트 및 메인 주 등 5개 주에 위치한 10개 한국/한글학교에서 약 7십 명의 교사와 학부모 등 백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스톤 장로교회 본당 및 친교실에서 진행됐다.

김소희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1부에서 남일 회장과 오인식 이사장은 3년 전에 예정했던 보스톤 장로교회에서 다시 대면 행사로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유튜브 라이브 및 사진촬영



수상자 명단	
20년 이상 개교기념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스톤한국학교(35주년/교장 강상철) • 보스톤천주교 한국학교(36주년/교장 이현아) • 우스터 한국학교(40주년/교장 윤미랑)
장기근속교사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근속: 김민경(내슈아 한마음) 박지혜 양수연(뉴잉글랜드) 김영숙(보스톤한국) 이수연(보스톤천주교) 류정하(애머스트) • 10년 근속: 권인호(보스톤천주교) 서효순(우스터) • 15년 근속: 김소희 김정자 박현아 정성철 (뉴잉글랜드) 곽서영(보스톤한국) • 20년 근속: 이선진 이영미(뉴잉글랜드) Mike Uiterwijk (보스톤한국) • 30년 근속: 윤미아(뉴잉글랜드)
2023년도 우수교사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종국(내슈아한마음) 김소희 박철린 우다혜 이성희 임주광(뉴잉글랜드) 강예슬(메인) • 정유미(보스톤한국) 한은경(보스톤장로교회) 길소영(보스톤중앙장로교회) 김혜경(보스톤천주교) • 김진희(북부보스톤) 류정하(애머스트) 이미라(우스터)
2023년도 우수 배우자 표창(괄호 안은 교사 및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지원(김연정 교사/내슈아한마음) 최윤석(강승연/뉴잉글랜드) 최현구(김희현/뉴잉글랜드) • 박진모(류인희/뉴잉글랜드) 정성환(박지혜/뉴잉글랜드) 김준배(주민정/뉴잉글랜드) • 배광현(정유미/보스톤한국) 오지석(유지형/보스톤장로교회) • 조우성(길소영/보스톤중앙장로교회) • 윤초아(이영태/보스톤천주교) 조구모세(조호숙/북부보스톤) 권도훈(애머스트)

과 행사장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회 관계자 여러분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다고 환영사를 대신했다.

국내 회의로 참석하지 못한 유기준 총영사의 축사를 대독한 윤성근 교육영사는 “해외에서 국가와 전

통 및 언어를 유지하기 위해 동포 2세들의 언어와 문화 역사 교육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여러 한글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한다” 고 교사들께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강연회에서 황은하 강사(웨슬리 대학)는 “언어 학습, 학습자, 교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교실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어른의 눈높이에서 Native vs. Non-native로 단순 나누기를 ▶▶3면으로 계속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2면에 이어서

하게 되는 교육방향과 목적에 벗어나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게 될 2세들이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와 함께 성장하고 이야기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자” 고 강연했다.

이어 장성철 강사(보스턴장로교회 담임 목사)는 같은 입장의 정보만 반복적으로 습득하는 에코 챔버,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필터 버블, 자기만이 사고가 옳다는 확증편향을 깨뜨릴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교사도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연했다.

또한, 보스턴 장로교회의 Youth Orchestra 단원들은 임근영 선생의 지도로 스승의 은혜 및 찬송가 연주를 교사들에게 선사했다.

이어진 2부 사은회 행사는 박현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저녁 식사 후 시상식 및 교사대항 퀴즈와 민속놀이를 즐기는 등 오래간만에 대면으로 열린 사은회 행사를 만끽했다.

협의회는 오는 5월 13일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2023년도 NE지역 어린이 글짓기 & 손글씨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사회와 미국사회의 연결고리 국제선 모금 만찬 15일

유매스로웰 컨퍼런스 센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는 4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팬데믹 이후 두번째로 연례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국제선 모금만찬은 한인사회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첫번째 행사이기도 하다.

이번 기금모금 만찬은 유매스로웰 컨퍼런스센터(UMass Lowell Inn &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한다. 만찬 입장료는 1인당 \$100이다. 국제선 만찬에서 모인 기금은 평화의 집 컴퓨터 구축과 2세들 지원에 사용된다.

지난해 국제선 모임에는 현 부주지사로 당선된 김 드리스콜 당시 셸럽 시장 등 미국계 인사들도 다수 참여했다. 국제선 모임은 한국과 미국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만찬과 티켓 등에 대한 문의는 781.248.5546 또는 978.828.1383으로 할 수 있다.

일시: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장 소 : UMass Lowell Inn & Conference Center(50 Warren St. Lowell, MA 01852)

bostonkorean@hotmail.com



심판 세미나를 마치고 정재형 관장(MSTA 회장), 장영수 관장, 양우석 사범, 알렉스 정 사범, 린드라 토레스(Leandra Torres) 사범, 마이클 큐렌(Michael Curran) 사범

매사추세츠주 태권도협회 심판 세미나 가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

부 = 매사추세츠주 태권도협회는 (MSTA) 지난 25일 토요일 오후 전반기 주 태권도 대회를 앞서 1차 심판 세미나를 스루스베리 U.S.T.C.에서 가졌다.

1차 세미나에서는 시험은 겨루기와 품새 그리고 격과부문 중 겨루기에 대하여 집중 교육하는 시간이었으며 이날 35명의 심판들과 10여명의 사범들이과 함께 세미나에 참여했다.

매사추세츠주 태권도협회는 대표팀이 2016년과 2019년에 미전

국 챔피언십 시범경연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재형 회장은 앞으로도 선수진 양성과 지원, 그리고 각도장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범들뿐 아니라 미국사범들과의 화합으로 진정하고 통합된 주 태권도협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2차 세미나는 오는 4월8일 같은 장소에서 가지게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케임브리지 우편배달부 칠면조 공격받아 엉덩이뼈 부러져

49세의 미첼씨 20여년간 케임브리지서 우편배달 처음 공격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지난달 케임브리지에서 한 남성 우편배달부가 야생 칠면조의 공격을 받아 엉덩이 뼈가 부러져 고관절치환수술을 받았다.

웨이머스에 거주하는 에드 미첼(49)씨는 케임브리지에서 약 20여년간 도보로 우편을 배달해왔다. 그동안 한번도 야생동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3월 하버드스퀘어 인근에서 칠면조 3마리의 공격을 받게 됐다.

칠면조들은 보통 가든 스트리트에서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데 2마리의 칠면조는 3월 20일 오후 휴런 애비뉴의 한 집앞에서 있다 우편배달부가 접근해오는 것을 보고 공격적으로 돌변했다.

미첼은 “칠면조의 소리를 들었으며 바로 공격적으로 돌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고 밝혔다.

그는 쓰레기통과 나무를 방패삼았지만 돌아 보자 한 칠면조가 날아서 달려들고 있었다. 주 야생동

물관리국에 따르면 칠면조는 최대 시속 50마일의 속도로 날 수 있다. 미 은 칠면조가 어떻게 그를 어느 부분을 들이받았는지 전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도로 위에 쓰러졌고 칠면조들은 그를 계속 쫓아댔다. 행인들이 이를 보고 칠면조를 쫓아 보내 그를 구했다.

구급차에 실려 인근 마운트어번 병원으로 후송된 그는 2일 후 고관절치환수술을 받게 됐다. 2주 후인 지금은 보조기 또는 지팡이를 이용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약 6개월 정도에 걸쳐 완전히 회복된 후 다시 일선에 복귀할 계획이다.

주 야생동물관리국은 칠면조는 3월부터 5월까지 짝짓기 시즌이며 야생칠면조들은 훨씬 더 공격적이게 변한다고 밝혔다. 특히 큰 소리를 내서 쫓거나 낚자루 또는 물호스로 쫓아야 한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데담 경찰 주민들에게 공격적인 칠면조 주의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데담(Dedham, MA) 경찰은 4일 최근들어 “공격적인 칠면조”와의 마주치는 사건이 빈발하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데담 경찰은 “동물 보호국에 최근들어 칠면조가 사람을 추격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며 밝혔다.

경찰은 “3월부터 5월까지 짝짓기 시즌이어서 수놈 칠면조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아주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며 “칠면조들이 점차 사람들과의 교류에 익숙해져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일부 주민들이 칠면조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먹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에 대한 공격 성향이 훨씬 강해졌다” 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케임브리지에서는 터키가 우편배달부를 공격해 고관절치환수술까지 받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칠면조가 차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차에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른 칠면조인 것으로 착각해서 발생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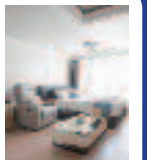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주)제이투케이컴퍼니 협력업체

기러기의 꿈 여주인공 임은지 "보스톤에서 특별한 경험될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기러기 아빠와 탈북녀의 인터넷을 통한 사랑 얘기를 다룬 연극 <Wild Geese Dream>가 이번 주로 막을 내린다. 여주인공 유난희 역을 맡은 임은지씨는 “보스톤에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이 될 것이라고 연극을 소개했다.

보스톤이라는 도시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극에 많은 아시안 배우가 등장하는 작품은 정말 보기 힘든 특별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임씨는 “특별한 함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류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 세계적인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이번 연극”이라고 설명했다.

임은지씨는 이번 유난희 역을 맡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이번 난희 역을 맡으면서 북한 사람의 삶과, 실상, 탈북민에 대한 영상을 많이 공부하게 됐다. 같은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인들에 대해 알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임은지씨는 “어느 환경에 있던 모두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됐다”고 털어놨다.

남한과 북한은 거의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지만 분단으로 인해 미국보다 심리적으로 더 먼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미국 보스톤의 연극무대에 놓인 남북한, 탈북민, 기러기 아빠 등 어찌 보면 한인들에게는 커다란 아픔이기도 한 어두운 측면이 이번 연극에서 어떻게 승화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관객들의 호응도는 아주 좋다”라는 것이 임은지씨의 말이다. 이번 연극을 연출한 김선재 감독은 “가장 힘들었던 연극” 이라고 말했던 만큼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낸 것이 그대로 반영된 듯하다.

임은지씨는 “김선재 감독이 재미있게 연출해서 두번, 세번 보러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고 말했다.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 (김 감독이) 배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편안한 무대를 만들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하고 좋은 연극이 만들어졌다” 고 말했다.

임씨는 한국 국민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연기 강사를 하다가 유학을 결심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배우로서 활약하다 현재 국민대에서 가르치는



보스톤에서 공연중인 연극 기러기의 꿈의 여주인공 유난희 역을 맡은 임은지. (임은지닷컴 사진 캡처)

김예림 교수에게 영감을 받은 것이다. 2018년 뉴욕의 액터 스튜디오 드라마스쿨에서 공부를 시작해 2021년도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장래 꿈은 문화예술 외교관이다. 외교부에 새로운 외교관 직책이 있나 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임씨는 “공연 회사를 설립을 해서 공연을 작품을 쓰기도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나라들 중에서 문화나 예술에 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공연을 가르치고 선보이는 예술 교육을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을 생각했다” 고 말했다. 기자의 고정된 사고가 수정되는 과정이었다.

임씨는 유명 배우 아담 드라이버가 해군 출신으로 은퇴 후 군인을 위로하는 공연 회사를 설립한 것을 예로 들었다. “유명해 지는게 좋은 점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는 것이다.

지난해 이 연극을 위한 오디션을 보기 위해 보스톤을 방문했다는 그는 “보스톤이 조용하고 너무 좋았다. 연극을 하면서 두,세달 머물고 싶

었다” 고 말했다.

연극 <Wild Geese Dream>은 보스톤센터포더아츠(Boston Center for the Arts, 527 Tremont St.)에서 공연 중이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8시 공연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수요일(4/5) 저녁 7시 30분
목요일(4/6) 오후 2시, 저녁 7시 30분
금요일(4/7) 저녁 8시
토요일(4/8) 오후 2시, 저녁 8시
editor@bsotonkorea.com

SINCE 1899
정관장
紅蔘
6년근
KOREAN RED GINSENG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하버드 아시안 합격율 29.9%로 크게 늘어

2023년 신입생 1,942명, 합격율 3.4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는 올해 56,937명의 지원자 중 얼리액션 프로그램으로 12월 722명을 선발한 이래 30일 저녁 7시 1,220명의 학생들을 추가 선발 통보를 함에 따라 지원자의 3.41%인 1,942명을 받아들였다.

올해 합격율은 지난해 가장 낮았던 3.19%에서 약간 오른 사상 두번째였다. 올해 지원자가 지난해 61,220명에 비해 약 7%가량 줄은 덕이었다.

올해 전체 합격자 중 흑인 학생은 15.3%로 지난해 15.5%에 비해 근소하게 감소했다. 남미계 학생들의 비율도 12.6%에서 11.3%로 줄었으며 미국 원주민들도 지난해 2.9%에서 2%정도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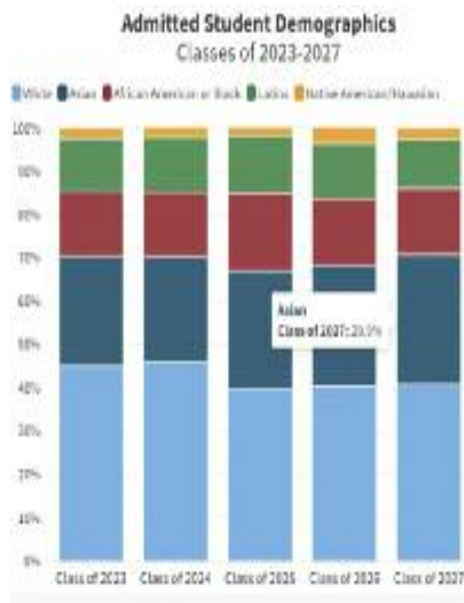
올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아시안 학생의 비율로 지난해의 27.8%에서 2.1% 증가한 29.9%였다. 백인학생들도 40.4%에서 40.8%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윌리엄 피치몬스 학생입학처장은 “이는 장기적인 경향의 일부다. 아시안들의 입학율은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아시안들의 입학율 증가는 현재 대법원에 심사중인 하버드의 어퍼머티브액션의 영향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법학계에서는 대법원의 보수성향에 따라 늦은 봄 도는 여름께 어퍼머티브액션의 판결이 뒤집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합격생들은 50개주 102국가 출신들이다. 22%가 동남부, 17.4%가 남부, 15.9%가 뉴잉글랜드, 17%가 서부, 10.1% 중서부, 15.8% 그외 미국 및 외국 출신들로 구성됐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 캐나다에서 44명의 학생이, 영국에서 24명의 학생이 그리고 중국에서 16명의 학생이 합격했다. 또한 호주에서 12명, 이탈리아에서 10명, 독일, 터키, 인디아에서 각 8명,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7명의 학생이 합격했다.



6년 연속 여성의 합격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합격생의 53.6%가 여성으로 지난해의 54.2%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32명이 성소수자였다.

전체 합격자의 28%가 소셜 사이언스, 17.4%가 생물학, 16%가 인류학, 9.5%가 엔지니어링, 8.8%가 컴퓨터 공학, 6.8%가 물리학, 6.5%가 수학을 전공으로 정했으며 나머지 6.7%는 전공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버드는 중·저소득층 자녀의 재정지원을 높였으며 연소득 \$85,000 이하의 가정의 자녀들은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들의 올해 학비 총액은 \$79,450이다.

입학 및 재정지원처는 약 55%의 학생이 장학금 그랜트에 해당해 연 \$13,000의 학비를 부담하게 되며 19%의 학생이 펠그랜트에 해당된다.

올해 하버드는 여전히 SAT 성적 없이 지원토록 했으며 이 정책은 앞으로도 3년 더 적용될 예정이다. SAT 성적 제출은 선택이었으나 대부분은 성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들은 5월 1일까지 입학할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hsb@bsotokorea.com

'Ladies'가 뭐길래, 이메일에 썼다가 이스트햄튼 교육감직 박탈

▶▶1면에 이어서 이 학교위 위원장인 신시아 퀘신스키와 계약 협상 이메일에서 두명의 학교위원회 여성 위원들을 상대로 “레이디스”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지역신문 데일리 햄프셔 가젯은 보도했다.

현재 웨스트스프링필드의 임시 교육감인 페론은 데일리 햄프셔 가젯과의 인터뷰에서 퀘신스키 위원장이 “레이디스란 표현은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이며 “교육자로서 이런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간단하고 평범한 일상적인 언어 등을 이야기한다. 상당수는 “레이디스”란 표현에 개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분류된다.

전통적인 성 역할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며, 여성은 예의 바르고 온순하며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이러한 것들은 불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성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강조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특히 직장 등 전문적인 일을 하는 상황에서 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페론 교육감은 자신이 자라날 때 “레이디스” 앤 “젠틀맨”은 존경의 표시로 사용하던 용어였으며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페론은 “이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긍정적인 면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치를 설정해 줄 수도 있었다.”면서 “이런 기회 대신 대화조차도 할 수 없는 부정만 있었다”고 이 신문에 털어놨다.

이 같은 학교위원회의 결정이 알려지자 이 사건은 매사추세츠 서부뿐만 아니라 뉴

욕포스트 등이 보도에 나서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이스트햄튼 지역내에서의 갈등도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 위원회 위원들을 소환하지는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 청원에 4월 5일 아침 700여명 이상이 서명하기도 했다. 청원을 올린 마리아 브랜스콤브는 청원에 올린 글에서 갑작스런 채용 취소는 개인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남게 한다고 적었다.

이스트햄튼 시청 빌당에서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페론을 옹호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일부 주민들은 시 클러를 찾아 소환절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스트햄튼 교육협회(EEA)는 “밀실 회의를 통해 결정을 바꾸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결정에 참여한 학교위원회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EA 손 세한 회장은 페론 교육감을 “뛰어난 행정가이며 학생들을 보살피고 긍정적인 학교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이스트햄튼 하이스쿨 교장 재직 시절이 학교를 MCAS에서 성적우수 군으로 상승시켰던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으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단어까지 제한하는 진보적 가치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어그레션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반면 교육직에 오르는 전문가가 단어 선택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마이크로어그레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치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단어 하나가 교육감이란 직책을 날려버릴 정도인가에는 고개를 저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오바마케어 예방의료 위한 판결, 매사추세츠에도 큰 파장일 듯

예방의료서비스 항목 전액 보험 적용 의무화 조항 위한 판결
주의회, 주법으로 예방의료서비스 전액 보험 보장 의무화할 듯
직장의료보험 60%는 예방의료서비스 항목에 비용부담 할 수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텍사스 한 법원이 오바마케어 예방건강관리서비스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 주민을 비롯한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향후 추가로 의료비를 부담할 수도 있게 됐다.

텍사스 북부지법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3월 30일 예방의료서비스 즉 각종 의료관련 검사, 처방약, 진료상담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한 오바마케어(ACA)의 규정을 뒤집었다.

이 의무화 규정은 독립된 전문가 자문 패널로 구성된 미예방의료 타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법제화됐으나 판사는 전담반의 인원들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서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았기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오코너 판사는 과거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을 위한 판결에 뒤집었던 판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져 오바마케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비록 미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불안장애 검사, 임신부의 체중조절과 검사, HIV 예방약물인 프리프((PREP) 등의 예방진료서비스들이 전액 보장되지 않을 위험에 놓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예방건강관리 진료를 받게 될 때 환자들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에 불확실하다는 의미다.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전액 보험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환

자 부담케 하는 코스트셰어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매년 건강보험은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환자들이 예방의학 서비스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예방건강관리 서비스의 전액 보장 즉 제로비용부담 규정은 오바마케어가 의무화 한 상태에서도 문제였으며 일부 환자들은 실험실의 단독작업과 추후 진료비용을 부담해야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텍사스 판결은 성병예방약품 등 약품 보험 적용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GLBTQ 범용호 및 보호 HIV법 소송과 상임 디렉터인 벤 클라인씨는 "HIV예방약의 처방 약 없이 남성끼리의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 에이즈 중독이 한해에만도 17% 증가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매사추세츠 최대 보험사인 블루크로스블루실드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판결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담반이 의무화한 예방의료서비스는 당분간 동일하게 적용되며 코스트셰어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 온라인 건강보험 마켓인 헬스커넥터(Health Connector)는 이미 참여 보험회사들이 예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코스트셰어링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건강보험협회의 로라 펠레그리니 회장은 가입된 보험사들은 모두가 오바마케어의 예방의료서비스의 보험적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이 부분을 주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이미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대비해 이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신디 프리드먼 상원의원과 존 론 하원의원은 전담반이 권장한 조항뿐만 아니라 ACA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다른 예방의료서비스의 전액 보험적용을 법제화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백신, 예방의료, 그리고 유아, 어린이, 성인들에 관한 각종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디 의원은 "판결은 정치적인 결정이며 비인간적인 행위" 라고 비난하고 "만약 이 판결이 계속 존속하게 되면 이로 인해 수백만 미국인들의 보험적용을 앗아가게 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한

부분을 주정부 차원에서 미리 완화시켜야 했다" 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다른 두개 법안이 예방의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예방의료의 코스트셰어링을 없애는 조항과 이를 주 보험장관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법안은 약국이 60일동안 약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법으로 의무화더라도 일반적인 셀프건강보험시장의 60%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1년 2백39만명이 직장에서 직원들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셀프건강보험플랜에 가입되어 있다. 많은 대형회사들은 셀프건강보험을 선택하는데 이들의 경우 연방법에 따르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주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hsb@bsotonkorea.com

보스톤 커뮤니티칼리지 나이, 이민 신분 상관없이 무료

▶▶1면에 이어서
기관과 협력해 서류미비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스톤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했으며 이들의 경우 졸업확률이 일반학생에 비해 3배나 높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벤자민프랭클린커밍스기술대, 벙커힐커뮤니티칼리지, 매사소이트커뮤니티칼리지, 매스베이크커뮤니티칼리지, 락스베리커뮤니티칼리지, 그리고 어번칼리지오브보스턴이다.

어이어나 프레슬리 연방하원의원은 "학생들에게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을 못다니는 계층에게 이를 허용토록 하는 의미도 있다" 고 말하고 "우 시장과 제니 시장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감사한다" 고 밝혔다.

보스톤시는 매사추세츠아트앤디자인칼리지가 펠 장학금 대상 학생들의 경우 커뮤니티칼리지에서 무료 학사학위 프로그램으로 트랜스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커뮤니티칼리지플랜(TFCC)은 보스톤시 인력개발처(Workforce Development)에서 주관한다.

hsb@bostr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권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구글, 항공료 구입 후 떨어지면 차액 보상

구글로 예약하면 결코 과다 지불하는 경우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구글은 비행기 표를 예약한 후 출발 전까지 어느 한 순간이라도 항공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항공료 가격 보장 정책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구글은 현재 알래스카, 스포리트, 그리고 하와이안 항공사에만 이 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예약한 왕복항공료가 가격보장정책에 적용되는 경우 연한 파랑색의 가격 보장 배지가 운임료 옵션위에 나타난다. 이 같은 보장정책은 반드시 검색 결과에서 구글예약(Book on Google) 링크를 통해서 예약해야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구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와 지불정보를 입력하고 난 후 각 항공사 웹사이트로 옮겨가게 되며 이곳에서 예약을 확인하게 된다.

구글은 구글 예약(Book on

Google)의 범위를 넘어 가능한 많은 사용자들에게 이 같은 정책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간을 설정되지 않았다.

가격이 내려가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고객들은 이메일을 통해 이를 통보 받게 되고 자동적으로 구글페이 계좌에 돈이 반환된다. 구글계좌에 돈을 받은 경우 이를 자신의 은행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구글페이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 설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구글은 구글 예약(Book on Google)을 통해 항공사를 예약하는 경우 참여하는 항공사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항공료 변경으로 인한 차액도 항공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닌 구글에서 지불하게 된다.

구글 항공의 제품매니저 제이드 케슬러는 "사람들이 구글항공예약

을 신뢰하길 원하며 항공여행에서 좋은 딜과 가격 보장이 필요할 때 구글이 이를 도울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예약 앱인 호퍼(Hopper)는 2019년부터 항공요금 고정 기능을 제공했었다. 고객들은 예약이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가격을 발견하면 이를 일정 가격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격고정(price-freeze) 옵션이 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페루 방문 항공료를 \$350에 고정하는 비용은 \$30 정도였다. 만약 가격이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항공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호퍼에 따르면 약 55%의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통해 이득을 남겼다.

호퍼는 그러나 가격 하락에 대한 가격보장 정책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좋은 딜이 있을 때 통보해주는 무료 "여행 딜 지켜보기(watch a trip)" 를 선택하면 좋은 가격이 있을 때 이를 알려준다.

hsb@bsotonkorea.com



메모리얼드라이브 토요일에는 차량 통행 복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공원관리부(DCR)는 올해 4월 30일부터는 토요일 메모리얼드라이브 통제를 해제해 차량 통행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일요일에만 메모리얼드라이브의 차량이 통제돼 소위 리버밴드 파크(Riverbend Park)가 형성된다.

지난 몇 년간 메모리얼드라이브는 토요일 일요일 양일 모두 통

제해왔다. 주정부는 일부 케임브리지시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반대에서 토요일 통제를 해제했다.

DCR 일리스 월버그 대변인은 보스톤헤럴드의 인터뷰에서 "메모리얼 드라이브 주변의 주민들의 경우 차량 통행 증가와 오염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며 이 같은 환경공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hsb@bsotonkorea.com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I. 보상금 신청

제주4·3위원회 심의

결정서 정보 및 통지서 송달

II. 보상금 청구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에게는 보상금 결정서 미발송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1,703 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ju.go.kr>) 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지연이자 지급

보상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9천만원
- 수형인: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금: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4,5천만원 벌금형: 3천만원

- 후유장애인: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1~3 등급	4~8 등급	9~14 등급
9천만원	7.5천만원	5천만원

- 제외대상: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민법상 상속권자

신청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보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보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보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씨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체중감량과 전신토닝을 위한 1시간 근력운동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신 분들, 매번 다이어트 할 때마다 실패하시는 분들은 오늘 칼럼에 주목해주세요.

요요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습관을 리셋하는게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주 2-3회 강도있는 근력운동을 병행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건강한 식습관도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오후보다는 아침엔 비타민 풍부한 과일 듬뿍 드시고 정제된 탄수화물(빵이나 국수)보다는 감자 고구마 현미밥 등을 더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근력운동 루틴을 위해 덤벨이나 가벼운 물통 준비해주시구요, 도구가 준비 되지 않았다면 웨이트 없이 맨몸으로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1시간 전신 다이어트 + 근력 영상을 찾아해보면 훨씬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Forward Attitude Bicep Curl : 팔뚝과 허벅지, 뱃살 정리

1단계 선자세에서 중심을 한발에 싣고 다른 무릎을 바깥으로 접어 올립니다.

2단계 주먹을 쥐거나 손에 덤벨이나 물병을



들고 어깨 앞으로 끌어올립니다.

3단계 위의 두 동작을 함께 콤보로 이어가며 10-15회 반복해주세요.

4단계 다리를 바꿔 반대방향도 진행합니다.

TIP!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척추를 펴줍니다.

2. Wide Squat Reach Over : 옆구리, 안벅지 슬리밍 효과

1단계 두 다리를 벌리고 와이드 스퀴트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한손을 머리너머로 뻗고 옆구리를 시원하게 스트레칭해줍니다.

3단계 코어의 힘으로 복부를 끌어당기며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4단계 팔을 바꿔 반대방향으로도 10-15회 반복합니다.

TIP! 덤벨을 들지 않고 해도 충분히 하체 토닝과 옆구리, 팔라인 정리에 효과가 큰 동작. 자신의 근력과 에너지에 맞게 선택해 운동해줍니다.



3. Lunge High Knee : 다리 근력 강화, 발목 강화, 어깨 팔라인 정리

1단계 서혜부부터 접고 내려가는 힙힌지 자세와 런지를 함께 진행해주세요.



2단계 허리를 곧게 펴고 뒤로 보냈던 다리를 앞으로 들어올려 무릎을 가슴쪽으로 끌어당깁니다.

3단계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가 한발 서기에서는 천정으로 힘차게 뻗어주세요.

4단계 영상에서는 Lateral Raise 동작으로 팔과 어깨 운동을 좀더 강조했으니 참고하며 변형자세도 따라해보시구요.

TIP!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한자세 밸런스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런지 동작만 따라하셔도 충분합니다.



4. Double Pigeon Stretch : 고관절 스트레칭, 골반과 허리 통증 완화

1단계 하체 운동이 끝나는데로 쿨다운 스트레칭을 준비합니다.

2단계 두다리를 사진과 같이 포개어 올라온 무릎을 지긋이 눌러줍니다.

3단계 두 정강이가 서로 포개지도록 최대한 맞춰보고 허벅지 바깥쪽과 둔근의 스트레칭을

느껴봅니다.

4단계 이 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영상을 따라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리 바꿔 반복)

TIP!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을 유지하며 움직임을 충분히 갖고 서서히 고관절의 가동범위를 늘려주세요.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it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it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임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I've helped 35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3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wards:

- 2022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s List

COMPASS

Achieved in 2022

\$22M+

TOTAL SALES & RENTALS

36+

TOTAL # OF TRANSACTIONS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팬들로 가득 메운 "K-Pop 댄스나잇" 5월 5일 다시 한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욕한 국문화원 주최 <K-Pop Dance Night>이 지난 3월 31일 저녁 500여명의 케이팝 팬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링컨센터 데이빗 루벤스타인 아트리움 (David Rubenstein Atrium)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뉴욕 기반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K-Pop 댄스그룹 'ILOVE DANCE'의 케이팝 메들리로 공연이 시작됐다.

걸그룹 미쓰에이 (Miss A) 출신 '민 (Min)'이 자신의 발표 곡 중 "힛 미 업 (Hit Me Up)" 댄스 워크숍을 갖고 관중과의 합동댄스 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한인 여성 DJ 'Peach'가 출연하여 블랙핑크, 에스파, 뉴진스, 아이브 및 르세라핌 등 K-Pop 걸그룹의 음악을 중심으로 한 댄스나이트를 선보였다.

<K-Pop Dance Night>에 참석한 팬들은 케이팝이 릴레이로 펼쳐지는 내내 합성과 함께 신나는 댄스파티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K-Pop Dance Night>는 5월 5일(금)에도 이어지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여 펼쳐질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사우디 · 이란 외교수장 중국서 회담... "중동 안정 · 번영 이뤄야"

대사관 · 여행 · 비자업무 재개 논의...이슬람 성지 제다 · 마샤드엔 영사관 중국 "양국 관계 개선 환영...계속 중재자 역할 발휘할 것"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중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외교 수장들이 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관계 정상화 합의 후 이행 조치 등을 논의했다.

중국 외교부와 이란 외무부 따르면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과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상호 신뢰 구축과 중동의 안보, 안정, 번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지난달 합의에 따라 내달까지 대사관 · 영사관을 다시 열기로 했다. 대사관은 양국의 수도에, 영사관은 각국의 이슬람 성지인 제다와 마샤드에 설치될 예정이다.

파이살 장관과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정부 관리와 민간인이 양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 운영과 비자 발급 문제도 논의했다.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트위터에 "나의 동료인 파이살 사우디 왕자와 긍정적인 대화를 했다"며 "올해부터 이란인들의 메카 성지순례(하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썼다.

무슬림은 건강과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한 평생 한 번은 하지에 참가해야 한다. 그간 이란인들에게 외교 관계가 끊긴 사우디를 방문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양국은 성명에서 "향후 실무팀이 지속해서 만나 협력 확장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양국 외교 수장이 만난 것은 7년여 만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외무부는 경제 · 무역 · 투자 · 기술 · 과학 · 문화 · 체육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장관이 가까운 미래에 서로 상대국을 방문해 후속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예고했다.

이란 현지 언론은 사우디와 관계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양국 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모하메드 모카베르 수석 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사우디 국왕이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을 리아드로 초청했으며, 라이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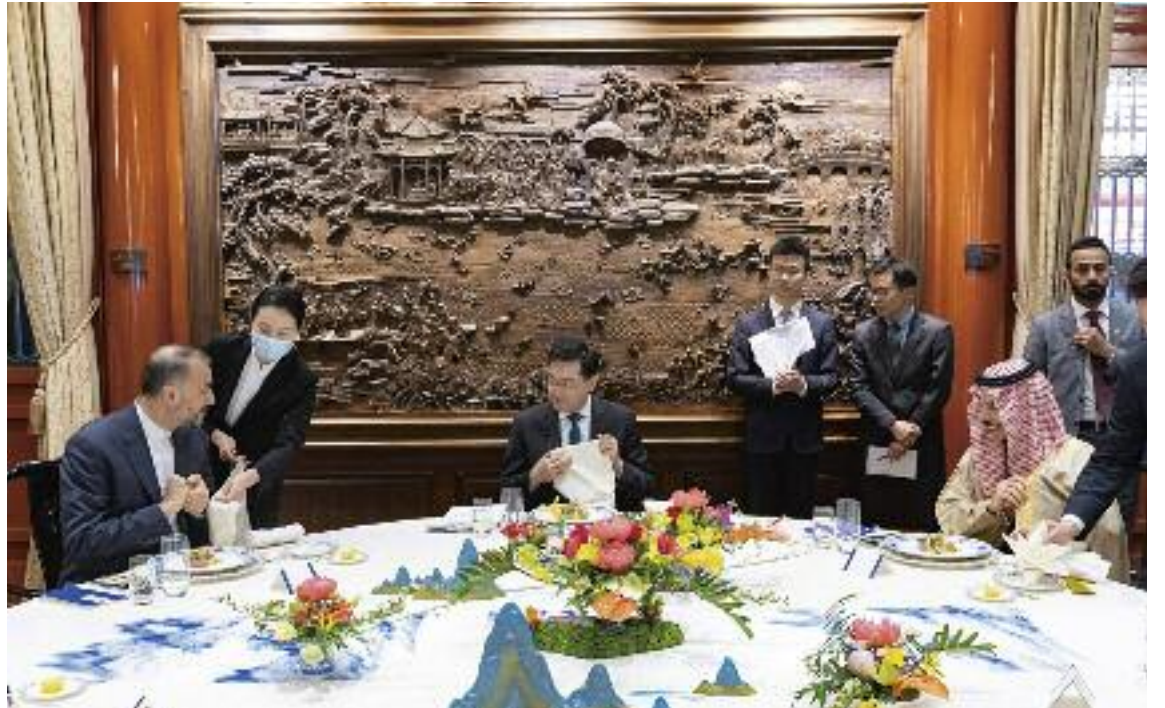
두 장관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 전화 통화하며 회담 장소와 일정을 조율했다.

란 관리는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로 양국의 화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외무장관 회담 장소도 베이징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사우디와 이란의 제안에 따라 양국 외교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했고, 친강 외교부장이 양국 외교장관을 만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 외교장관은 중국이 발휘한 중요한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환영하고 계속해서 중재자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며 "선린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왼쪽에서 첫 번째),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 친강 중국 외교부장(가운데)이 6일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있다. 이날 사우디와 이란 양국의 외교 수장은 관계 정상화 합의 후 항공기 운영과 비자 발급 문제 등의 이행 조치를 논의했다.

우호를 실현하고 중동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관계를 개선했다는 것은 지역 국가들이 평화와 발전의 주도권을 쥔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중동 국가들이 의견 차이를 해소하도록 도와야 하고, 모순을 선동하는 등의 수법은 전 세계 국민이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와 이란은 지난달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비밀 회담을 열어 단교 7년 만에 외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2개월 이내에 상호 대사관을 재개하기로 했다.

2016년 사우디가 이란의 반대에도 시아파 유력 성직자의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의 외교 관계는 단절됐다.

시진핑의 갈라치기 · 마크롱의 실익외교 도킹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5~7일 중국 국빈 방문은 중국에겐 '희망'을, 미국에겐 '두통'을 안긴 이벤트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하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에 이어진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중 · 러 연대에 대한 서방의 견제구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만연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서방의 대중국 견제 연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분리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적과, 미중 긴장 고조 속에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확대하려는 프랑스의 실익 외교 사이에 묘한 접점이 형성

된 모양새였다. 무엇보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많이 했다.

방중 첫날 교민 대상 연설과 기자회견과의 질의응답 때 마크롱은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계속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경제로부터의 디커플링이 이미 진행 중이며, 유일하게 남은 것은 속도와 강도의 문제뿐이라는 인상을 받는 반면 "나는 이 시나리오를 믿지 않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www.jounye.co.kr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www.jounye.co.kr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AI챗봇, 고소득 전문직 직접 위협...기자직에 가장 큰 영향

WSJ, 오픈AI · 펜실베이니아대 공동연구 결과 소개 챗GPT, 전체 근로자 19%의 업무 절반에 영향 미쳐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오픈AI의 챗GPT 등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챗봇이 기자 등 여러 전문직 종을 대체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과거의 기술 발전과 달리 챗봇의 발전이 대졸 고소득 전문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인 셰키드 노이와 휘트니 장의 조사에 따르면 예산 지원서 작성자, 데이터 분석가, 인사 전문가 등은 챗GPT를 이용해 전보다 평균 37%, 10분 더 짧은 시간에 보도자료와 짧은 보고서,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었다. 결과물도 더 우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다 평과 다른 세 명의 연구원이 한 실험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챗GPT와 같은 발전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도구를 사용해 웹 서버 프로그래밍 시간

을 절반 이상 단축했다.

골드만삭스 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생성형 AI가 경제 성장의 구성요소인 노동 생산성을 연간 약 1.5%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높은 노동 생산성은 몇몇 근로자나 업무 유형이 더는 필요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업무 자동화는 수 세기 동안 계속 노동을 대체해왔고, 특히 반복적인 작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와 달리 생성형 AI는 대학 교육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의 인적 자본을 강타한다.

오픈AI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어떤 직업이 생성형 AI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는지를 조사했다. 식당 설거지 담당자, 오토바이 수리공, 즉석요리 조리사 등은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반대로 가장 취약한 직업은 수학자, 통역사와 웹 디자이너였다.

연구진은 전체 근로자의 19%가량이 최소한 절반의 업무 분야에서 챗GPT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인공지능의 상상도

그중에서도 기사는 잠재적으로 업무 전체가 챗GPT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챗GPT 등 챗봇이 실수하고 오답을 내놓을 때도 있기 때문에 챗GPT가 말하는 모든 것을 객관적인 실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WSJ은 강조했다.

기업용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업체 파운드리ai의 짐 맨지 파트너는 "거대언어모델(LLM)은 정답이 아니라 만족스러

운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인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법률·의학적인견이나 대학의 강의계획서, 신문의 칼럼 등은 객관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챗GPT는 사실 측면의 오류를 줄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챗GPT가 과거 기술 발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넘친다는 것이

다.

그렇다고 해서, 챗봇으로 인해 기자를 포함한 수많은 직종이 없어진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은 빗나갈 때가 많았다.

약 20년 전 세계가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됐을 때 일부 학자들은 방사선 전문의를 포함한 미국 일자리 5분의 1을 없앨 것이라고 했지만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강남 학원가 덮친 마약 공포... "처음아니다, 이미 퍼지는 중"

"작년에도 학원 전단지에 마약사탕 끼워 준다' 소문" 학부모들 "남이 주는 음식 먹지 말라" 당부 또 당부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이미령 기자 =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 됐다. 뉴스로만 접해온 마약 사건이 생활 반경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놀라움의 반응도 많았다.

6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고등학생 심정현(17)군은 마약 음료수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심군은 "월요일 저녁에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2명이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봤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약 음료수를 나눠준 사람들이라기에 놀랐다"고 말했다.

심군은 "그날은 멀리서 지나갔지만 만약 마주했다면 거절을 못하고 받아 마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치동 인근에서 학원에 다닌다는 중학생 이민욱(15)군도 "원래 길거리에서 음식을 나눠 주면 잘 받아 먹는데 (해당 음료수는)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음료수병에 '○○ 제약'이라고 쓰여있으니 당연히 받아먹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김민준(18)군은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을 탄 음료수를 나눠줄 줄은 몰랐다"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데 많이 놀랐다"고 했다.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모(16)양은 "다 공부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

이 다 보니 혹해서 그런 음료를 마셨을 수도 있을 텐데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지 않느냐"며 "어른들이 잘 대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치동에 사는 학부모 박모(45)씨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박씨는 "작년에 이미 학원 홍보 전단지과 함께 마약 성분이 든 사탕을 함께 나눠준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마약 조식이 사탕, 음료수에 마약을 섞어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뿌려' 마약 예비 수요층을 만든다고 한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학생 사이에서 이미 퍼지는 중이라고 한다"며 우려했다.

자녀를 대치동 일대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자녀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다.

13세·19세 자녀가 있는 김현(51·송파구)씨는 관련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첫째가 사건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선릉역 일대 학원에 다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릴지 걱정된다"며 "애들에게 '밖에서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곱살짜리 자녀가 대치동 영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민모(37·강남구)씨도 "아이가 혼자 다닐 일은 아직 없지만 아이 주변에 마약 음료가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안하다"며 걱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



강남 대치동 학원가

정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우려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조모(48)씨는 중학생 아들이 최근까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수학학원에 다녀 뉴스를 보고 아이와 함께 놀란 기숨을 쓸어내렸다.

조씨는 "마약이 아니라 다른 약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일종의 '묻지마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일을 모르고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보가 없어 안내나 교육이 더 이뤄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의 다른 지역 학부모들도 마찬가지 심정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7살 딸을 기르는 황모(41)씨는 "남 일 같지 않다. 학생들이 인터넷과 SNS로 쉽게 마약을 구한다고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마약 사건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기·협박을 당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학원가뿐 아니라 최근 강남, 홍대의 클럽에선 자기 술병을 손에서 놓지 않고 들고다니는 것은 '상식'으로 통할 만큼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실수로 1회 투여했을 경우 병원에 가서 세척하면 중독되지는 않는다"며 "외국처럼 파티나 모임에 갈 때 자신의 컵을 준비한다든지 남이 주는 음료는 마시지 않는다는 내용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약물 중독 치료·재활 전문 조성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은 "아이들이 모르고 복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yna.co.kr, already@yna.co.kr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APR. 7th - APR. 13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EASTER BRINGS JOY, PEACE, LOVE, AND SAVINGS!

Happy Easter from our family to yours! 풍성하고 특별한 부활절 만찬을 H 마트에서 준비하세요!

AN EGG-CEPTIONAL EASTER SANDWICH THAT'S HARD TO EGG-NORE!

H 마트와 함께 부활절 달걀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달걀 샌드위치를 만들어보세요!
 All dressed up for Easter, each bite of this decadent sandwich makes you appreciate the creaminess of soft boiled eggs dashed with hints of garlic and butter.

Honey Ataulfo Mango 허니 아툴포 망고 BOX \$14.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Malanga 말랑가 LB \$1.2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Korean Singo Pear 한국 신고배 BOX \$34.99
Eddo 토란 LB \$1.49	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	Purple Yam 보라색 고구마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7.99	Fresh Beef Flank Steak 육개장용 생소 앞치마 양지 LB \$7.99
Fresh Pork CT Butt 수육용 생 돼지목살 CHUNK/LB \$5.99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2.99
Frozen Beef Ribeye Roll 불고기용 냉동 소 등심 FAMILY PACK/LB \$7.99	Marinated Pork Single Belly 양념 돼지 삼겹살 LB \$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HWAWOODANG Frozen Spicy Stir-fry Octopus/Cuttlefish/Squid 화우당 낙지/갑오징어/오징어 볶음 12.69 OZ/PKG \$5.99	Wild Caught LOUISIANA SHRIMP Shrimp from Louisiana Never fresher. Never better. Louisiana Head-on Shrimp 루이지애나 자연산 왕새우 10-15'S/LB \$6.99
Frozen Pollock Fillet 동태전감 LB \$4.99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S/LB \$14.99
Frozen Mussels in the Half Shell 반칸 홍합 1.5 LB/PKG \$8.99	Fresh Catfish 메기 LB \$1.99

SMART CARD MEMBER ONLY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17.99
I WANT 100% Natural Spring Water 아이원트 100% 내추럴 스프링 워터 16.9 FL OZ X 24 EA/PKG \$4.99	HAI O Pancake/Frying Batter Mix 해오름 부침가루 /튀김가루 2 LB \$1.99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 유기농장 유기농쌀 \$49.99 15 LB	NONGSHIM Neoguri Udon Type Noodles 농심 너구리 4.2 OZ X 16 PKG/BOX \$16.99	CHUNG 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7.99 7.05 OZ	SEMPIO Korean Traditional Soybean Paste 샘표 토장 \$6.99 31.74 OZ	CHUNGJUNGONE O'Food Premium Oyster Sauce 청정원 오'푸드 프리미엄 굴 소스 \$7.99 17.6 FL OZ
OSAKI BRAND Fish Cake 오사끼 게맛살 1.1 LB \$6.99	GREEN LAND Rice Paper 브랜드 아이템 이름 22 CM/12 OZ \$2.49	HAI O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Zaru Soba 해오름 메밀국수 \$4.99 3 LB	HAI O Canned Whelk 해오름 굴뱅이 캔 14.1 OZ \$5.99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CORN SOUP/CHOCO CHURROS \$2.99 5.6 OZ
MAEIL Biofeel Yogurt Drink 매일 바이오펜 요거르트 \$4.99 2.13 FL OZ X 25 EA/PKG	HAI O Yuza/Ginger Tea with Honey 해오름 꿀 유자차/생강차 2.2 LB \$4.99	Gray Dish Rack 꽃샘 한국산 그레이 자동 물빠짐 식기건조대 43.5 X 33.3 X 16.5 CM \$30.99 \$19.99 MADE IN KOREA/EA	DW Nurungji Pan 동우 사각 누룽지팬 197 X 170 MM \$30.99 \$23.99 EA	HELLO HOME Women's Fruit Slippers 헬로홈 여성용 과일모양 실내화 PINK/PEACH/YELLOW/NAVY (M/L) \$7.99 \$5.49 PAIR

Taste the tradition of Bibigo Kimchi at H Mart
H Mart에서 비비고 김치를 맛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s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hwa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김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kim@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kshin@bostonpremierrealty.com
--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예나 김 617.217.2037 daeyeo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김 987.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나키 박 617.447.0591 knaki@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박 617.780.702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5248 j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곤 김 617.542.5728 ekgim@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y@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kim@bostonpremierrealty.com	 최현민 617.877.0587 hmin@bostonpremierrealty.com	 최현 김 617.538.8975 h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김 401.935.3397 eunjung@bostonpremierrealty.com	 리사 김 213.935.8997 lis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김 415.507.1402 miki@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김 781.892.3412 ekgim@bostonpremierrealty.com
 셀비 김 781.690.4939 selby@bostonpremierrealty.com	 한세욱 781.996.1214 hanseok@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손상백 617.313.3369 sun@bostonpremierrealty.com	 레이미아 김 617.852.7485 remya@bostonpremierrealty.com	 김기태 617.721.8888 kgede@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617.224.55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미셸리 유 617.935.2713 michelle@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Song Chen 978.277.8430 so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3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e 240.449.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20.995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Rishi Chopra 617.897.1191 rishi@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64.80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 Wang 617.998.7212 lil@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933.818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e 978.873.6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o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5438 jake@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80.0434 isahyun@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8795 sasha@bostonpremierrealty.com	 Anthony Tran 857.208.4059 anthony@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여 '기강잡기' 나선 김기현... '의원정수 축소' 국면전환도 시도

지지율 하락·실언 반복에 "총선 장애요인 엄정 문책" 작심 경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잇따른 당 지도부의 민심과 동떨어진 실언에 6일 공개 경고장을 날리면서 당 기강 잡기에 나섰다.

취임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커녕 최고위원들의 '릴레이 실언' 탓에 민심이 반과 지지율 하락이 가속하는 점에 대한 수습 차원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 "비상 상황", "비정한 각오" 등의 강경한 표현도 나왔다.

김 대표는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공개회의 전 열리는 사전회

의에서도 문제가 된 인사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문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 대표의 경고 대상자가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4·3 추념일 격 낮다' 등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과 '밤 한 공기 캠페인' 발언으로 문제가 된 조수진 최고위원을 겨냥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여기에 흥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골프 연습을 한 김진태 강원지사와 제천 산불이 나 주민 대피령이 내린 날 숲자리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경고 대상에 포함됐다는 말이 나왔다.

광역단체장의 일탈 역시 당 지지율에 적지 않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김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러한 '작심 경고'에 더해 '의원 정수 축소'까지 꺼내 들었다.

내주인 10~13일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회에서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를 두고도 지지율 하락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다수의 국민 여론에 호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나오는 의원정수 확대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는 것이 국면 전환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일단 김 대표가 이날 내놓은 메시지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앞으로 당내 문제 있는 언행들에 대해 강단 있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기현의 시간인 총선 전까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 대표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기보다는 친윤 주류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대표

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리더십에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이상한 소리를 상쇄하고 넘어설 정도의 정책이나 메시지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며 "이상한 사람을 때려잡는 방법으로 가다가는 최고위원을 다 징계하고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조씨 "항소할 것"

법원, 조민씨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재판부 "절차상 하자 없고, 입학취소 사유 정경심 형사재판서 인정" 조민씨 변호인단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 다시 다투겠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운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씨 변호인단은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며 그동안 (재판에서)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조씨의 경력이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조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아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은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psj19@yna.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조민, 입학취소 판결에 "오늘 아버지 생신...더 마음 아프실 듯"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올렸다.

조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심정을 올렸다.

그는 또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

다. 모든 걸 내려놓는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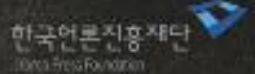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이 광고를 보는 한국연변신문사원의
정부를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오후 5: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5:30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ne (Daveluy) Parish in Corpus Christi

- 성목요일 (4/06)
8pm-주의 민찬미사
- 성금요일 (4/07)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 성토요일 (4/08)
9pm-부활 성야미사
- 부활절 (4/09)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v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를살을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Dry Cleaners for Sale

세탁소 매매 385K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세탁소 매매 2Million 부동산포함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	---

Watertown
연매상 350K

781.883.5984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APR. 6TH - 13TH, 2023

HAITAI Strike (Homerun Ball) Snack
해태 홈런볼 초코+커스타드크림
CHOCOLATE + CUSTARD CREAM
1.44 OZ X 8 PKG/BOX

REG. \$11.99
LIMIT 2
\$8.99

2 FLAVORS IN 1 BOX!!



Sweet Chocolate X 4

Custard Cream X 4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31) 암호화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누군가가 연수의 20%를 보장하는 투자를 광고하면 투자자 대부분이 귀가 솔깃해질 것이다. 여기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투자자가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너도나도 대박을 기대하면 투자하게 된다.

암호화폐 천재로 불리었던 권도형은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2조)의 손실을 끼친 범죄자로 전락했다. 상당수 투자자가 ‘남이 하니’, ‘가격이 오르면’, 그리고 마지막 돈 벌 기회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 수천 명이 ‘테라’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줄을 서고 열광했으니 얼마나 우스우며 슬픈 장면인가?

미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는 투기적 자산이다’.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투자금을 모두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한번 들 뜻 마음에는 변화가 없고 들리지도 않고 사실 듣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암호화폐 경제연구소 설립자 크리스천 카탈리니

교수도 ‘테라·루나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생태계가 성장하는 동안은 작동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다.

주의에 이런 투자 대박의 열풍으로 필자의 고객 자산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제안받았지만 한마디로 거절했다. 거절한 이유는 암호화폐의 속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내린 결론은 아니다. 제대로 된 투자 기본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투자의 기본은 투자한 종목을 사고팔지 않아도 수익이 창출해야 한다. 주식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지만, 투자 배당금(Dividend)이 나오고 채권은 이자(Interest)가 나오며 부동산은 월세(Rent) 등이 꾸준히 창출된다. 암호화폐는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에 사야지만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다. 이것이 투자와 투기의 큰 차이점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

대(경제학) 교수는 최근 자산시장의 흐름에 ‘서부 개척 시대’와 같은 사고방식이 일고 있다며 거품을 경고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를 예언한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가치의 원천이 너무 모호해서 현실보다는 말 한마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가능하기 어려운 암호화폐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지적한 것이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도 일반 투자자에게 항상 강조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구글, 코카콜라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이다. 암호화폐는 세금 보고할 때도 복잡하고 복잡하면 실수(First came the crypto crash, Now comes the taxman, WSJ, Laura Saunders, Nov. 11, 2022)할 수 있다는 위험

도 감수해야만 한다. 수익률 20%란 어떤 투자자가 \$100만 달러를 20%로 38년간 투자하면 억만장자(Billion)가 되는 매우 높은 수익률이다. 전 세계에 억만장자는 단 2,700명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로 평생 모은 자산을 잃었다는 소식(KBS 시사시각, 지옥문이 열린다)이 들린다. 본인들의 자산은 물론 일가친척 혹은 친지들의 돈까지 투자하게 했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22년 주식시장 18%를 폭락을 포함해서 지난 10년 미국 주식시장 연평균은 12.5%이다. 투자한 돈이 거의 3배가 되는 수익률이다. 주식시장 미 500대 기업을 말한다. 500대 기업이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 투자로 수익 혹은 대박을 생각하기 전 투자 위험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 “도박” 처럼 투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1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화랑도의 풍월주 제도를 폐지한 자의태후(신문왕의 모후)에게는 남동생도 한 명 있었다. 그가 김순원金順元인데, 698년(효소왕7년)에 시중에 올랐으나, 699년 ‘경영慶永의 난’ 연루되어 파면당했다. 하지만 곧 정계로 복귀하여 장녀를 성덕왕의 왕후로 들여보냈고, 739년에는 차녀를 효성왕의 왕후로 맺어서 성덕, 효성 두 왕의 장인이자, 효성왕의 외조부가 되었다.437) 또한 그에게는 아들 정종이 있었다.

김정종은 효성왕 즉위년인 737년에 상대등에 올랐다. 후임 상대등 김사인이 745년에 상대등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8년간 그 위치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왕후로 들어간 두 누이들 덕분에 막강한 세력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정종은 713년(성덕왕12년) 2월 김사공, 김사인, 윤충 등과 함께 건당사遣唐使로 당나라에 갔다.438) 그들을 영접하려고 황제가 직접 문까지 나왔으며, 그들이 동년 10월에 성덕왕의 책봉 조서를 들고 돌아올 때까지 당나라 현종玄宗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장군 임명과 상대등에 오른 기록 등 741년까지의 행적이 다소 삼국사기에 전한다

한편 ‘흙돌의 난’을 진압한 신문왕은 교서를 내려 백성들을 진정시켰고, 자의태후는 김오기에게 명하여 모든 화랑도들의 ‘낭도 명부’를 작성하여 병부兵部에 속하게 한 후 각자의 계급과 직분을 부여하였다. 즉 화랑도의 수장인 풍월주 제도를 없애고 모든 화랑도의 조직을 군사조직으로 편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태후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성은 왕경에서만 이행되었고 지방에 있었던 화랑도들은 일부가 따르기는 하였지만, 거의가 자체적으로 전과 동일한 낭정郎政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실직주悉直州는 거의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다.

실직주는 신라의 지방행정 단위로 등장하는 최초의 주이다. 505년(지증왕6년)에 전국의 주군현州郡縣을 정할 때 주州로는 실직주를 가장 먼저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軍主로 파견하였다. 주의 장관을 군사적 수장인 군주가 파견되었다는 것은, 실직주는 일정한 영역을 관할하는 지방행정구역이 아니라 해당방면의 영토를 방어하고 확장하는 군사적 전진기지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실직주가 설치되었던 현재의 강원도 삼척은 경상북도 울진(1962년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이관되었다) 지역까지를 포함했던 소국의 하나로 실직국 또는 실직국곡悉直谷國이라 불렀다. 실직국

은 음즙벌국音汁伐國과의 영토 분쟁을 계기로 102년(파사왕23년) 신라에 복속되었다. 실직은 내물왕과 눌지왕 재위 기간에도 등장한다. 그 후 556년(진흥왕 17년) 신라의 국경이 현재의 함경남도 안변까지 확장되었고, 그곳에 비열홀주比烈忽州가 설치되면서 실직주는 실직군이 되었다. 그리고 757년(경덕왕16년)에 이웃에 있는 하슬라주와 합쳐서 명주溟州(강원도 강릉)가 되었다.

문무왕이 사망하고(681년 7월21일), 장례도 치르기 전에 ‘흙돌의 난’이 일어났다. 태후가 된 자의는 김오기와 진복의 도움으로 반란을 며칠내에 진압하고 나라를 평정시켰다. 하지만 자의태후도 난을 진압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탓인지, 남편 문무왕이 떠나고 난 뒤 곧 이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681년). 김흙돌의 난에 많은 상선(전임 풍월주)들과 화랑도들이 가담하였다고 화랑도를 폐지하였지만, 자의태후가 사망한 때문인지 화랑은 다시 풍월주대신 국선의 휘하에서 조직을 굳건히 키우고 있었다.

437) 제34대 효성왕의 왕후 혜명의 아버지가 삼국사기에서는 이찬 김순원으로, 삼국유사에는 각각 진종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효성왕에게는 739년 출궁당한 첫 부인 황후박씨가 있었다. 아마도 첫 왕후의 아버지가 진종 일개연성이 크다(사서에서 진眞과 정眞을 혼

용했기에, 순원의 아들 정종이 진종으로 기록되어 순원의 차녀가 아닌 손녀가 효성왕의 왕후일 수도 있다). 또한 효성왕은 총애하는 후궁 박씨도 있었다. 그런데 왕후 일당이 이를 시기하여 후궁 박씨를 모살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후궁의 아버지 박영종朴永宗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740년8월에 일어난 ‘영종의 난’이다. 물론 난은 즉각 진압되었고, 영종 일당은 주살되었다.

438) 김사공金思恭은 718년 전임자 효정孝貞을 이어 중시를 역임하였다. 728년에는 역시 전임자 상대등 배부裴武가 나이가 많으며 물러나자, 김사공을 이찬(2등급)으로 관등을 올리고 상대등에 임명하였다. 그외의 기록은 김진종과 비슷하다. 732년에 장군에 임명되었고, 713년 당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김사인金思仁 역시 상대등을 역임하였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732년 김정종, 김사공, 윤충 등과 함께 장군에 임명되었고, 745년 김정종을 이어 상대등에 올랐다. 김윤충은 김유신의 손자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TALK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aram@haram.kr / www.huram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미 국무부, 여러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최종 규정 발표

2023년 3월 28일, 미 국무부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비이민 비자 신청에 대한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 규정은 60일 후인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비이민 비자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비용의 산출에 따라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영사 서비스 제공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비이민 비자에 대한 적절한 신청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국무부에서 수행한 가장 최근의 비용 산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여러 종류의 비이민 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완전히 회수하려면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9일 국무부는 여러 비이민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규칙 제안을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제안된 규칙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60일의 기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60일 기간은 2022년 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에서 발표한 현

재의 최종 규칙은 2021년 12월 29일에 이전에 발표된 제안된 규칙을 수정하여 현재 최종 규칙에 반영된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금액은 이전에 발표된 수수료만큼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발표된 제안된 규칙은 H, L, O, P, Q 및 R 카테고리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를 현재 \$190에서 \$310로 인상하여 \$120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종 규정에 따라 H, L, O, P, Q 및 R 카테고리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은 현재 신청 수수료 \$190에서 \$205로 인상되어 \$15 인상됩니다. 국무부는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전례 없는 상당한 감소가 이전에 발표된 제안된 규칙에서 제안된 신청 수수료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규칙이 발표된 후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에 대한 수요가 국무부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상대



적으로 빠른 보급으로 인해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국경이 개방된 것이 비이민 비자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종 규정에 따른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은 이전에 발행된 규정 제안에 의해 제안된 신청 수수료 인상만큼 높지 않습니다. 비이민 비자에 대한 수요가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종 규칙에 따라 청원서가 필요하

지 않은 비이민 비자(E 비자 제외)의 신청 수수료는 \$160에서 \$185로 인상됩니다. 여기사 청원이 필요 없는 비이민 비자에는 B(방문비자)와 F(학생비자)가 포함됩니다. H, L, O, P, Q 및 R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190에서 \$205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E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205에서 \$315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최종 규정은 2023년 5월 30일에 시행됩니다.

4월 9일 - 4월 1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작은 것에 만족하고</p> <p>● 운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작은 것에 만족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도록 하세요. 욕심을 버리면 더 큰 것을 얻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 애정: 그 어느 때보다도 부부간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11, 12일 길일. 9, 15일 주의.</p>	<p>소띠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해야</p> <p>● 운수: 자기 자신을 항상 잘 돌아보고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무절제한 생활에 빠지기 쉬울 때입니다. ● 금전: 지금으로서 확대는 무리가 됩니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 애정: 저울질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일단 저울질이 끝나면 흔들림 없이 한 우물만 파야 할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1, 12일 길일. 10, 13일 주의.</p>	<p>범띠 한 단계 발전이 가능한</p> <p>● 운수: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으나 한 단계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 금전: 주위의 도움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지출은 많이될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 애정: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는 것보다 때로는 강하게 끌고 가는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0, 15일 길일. 9, 11일 주의.</p>
<p>토끼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p> <p>● 운수: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 길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길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금전: 아무리 자신이 옳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끌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 애정: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말하기 이전에 내 가정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1, 14일 길일. 9, 12일 주의.</p>	<p>용띠 슬기와 재치가 필요한</p> <p>● 운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 금전: 참체기가 오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시 도전해보세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고 파악하는 슬기와 재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상대가 우울해하면 기분 전환을 시켜주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12, 14일 길일. 10, 13일 주의.</p>	<p>뱀띠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으니</p> <p>● 운수: 공연한 일에 헛수고만 하게 되는군요. 쓸데없는 일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중요할 때에 돈 문제가 속을 썩이는군요. 금전적인 문제로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으니 돈에 연연하지 마세요. ● 애정: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지요. 좋아하면 서로 사랑하기에는 어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말띠 행운을 잡을 수 있는</p> <p>● 운수: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이 연결되거나 투자할 분야에 대한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전: 대단한 행운을 잡게 되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단, 사소한 실수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세요. ● 애정: 사람 일은 알다가는 모른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과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양띠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한</p> <p>● 운수: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 금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됩니다. ● 애정: 마음의 여유가 없군요. 상대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지나치게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p>원숭이띠 의외의 도움을 받는</p> <p>● 운수: 남의 의견이나 충고를 성의 있게 받아들인다면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입니다. ● 금전: 판매나 상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활동 영역이 넓어지며 의외의 도움을 받는 행운의 시기입니다. ● 애정: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0, 12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닭띠 사랑의 고백을 받고</p> <p>● 운수: 어느 쪽으로 보든지 다 밝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사교적으로 좋을 때입니다. ● 금전: 계획했던 일이 성사되어 목돈이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마음 졸이던 일들도 해결되어 금전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 애정: 혼기가 늦춰졌던 미혼 남녀는 상대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게 됩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1, 13일 길일. 12, 15일 주의.</p>	<p>개띠 부드러운 말로 일깨워주어야</p> <p>● 운수: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지적은 하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말로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 금전: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는 척도 말고 조용히 맡은 일만 성실히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애정: 그런대로 평탄하게 지나갑니다.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의무감으로 가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군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4, 15일 길일. 9, 13일 주의.</p>	<p>돼지띠 기지개를 켜고</p> <p>● 운수: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 금전: 적은 돈은 들어오나 큰돈이 지출되니 금전에 대한 스트레스 생기기 쉽습니다. ● 애정: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는 일에는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묵묵히 응대 주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2, 15일 길일. 11, 14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38년 운영한 세탁소 판매
은퇴위해 매매 합니다.
Tel 617-304-1388

3/10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2/3

덴탈 랩 매매합니다.
Tel 508-215-9122

1/20

베벌리 타운 피자 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리바운드' 장항준 감독 "아내가 제 대표작 될 거라고 했어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제가 원래 끈기가 없습니다. 무슨 장인처럼 한 장르만 쪽 하지 못 해요. 하다 보면 지겨워지는 거 같고요. 가장 흥미가 나는 얘기를 그때그때 하려다 보니 마치 '김밥천국'처럼 돼 버렸네요."

2002년 영화 '라이터를 켜라'로 데뷔한 장항준 감독은 그동안 코미디와 드라마, 미스터리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연출과 각본 및 각색, 연기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장 감독이 '기억의 밤'(2017)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신작 '리바운드'는 2012년 고교 최약체로 평가받던 부산중앙고 농구부가 전국 무대에서 이뤄낸 기적같은 승리를 휴먼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낸 영화다.

재치와 입담이 좋기로 소문난 장 감독은 고교 선수들의 감동적인 승부가 그려지는 영화 곳곳에 유머 코드도 배치해 큰 웃음을 선사한다.

31일 한 카페에서 만난 장 감독은 말 그대로 유쾌함이 가득했다. 그는 "제 나이대 감독들은 수명이 거의 다 끝났다. 생각해보니 큰 히트작 없이 잘 살아남았다"며 웃으며 과거를 돌아봤다.

장 감독은 드라마 '킹덤' 시리즈와 '시그널', '씨인'을 쓴 김은희 작가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새 영화 '리바운드' 각색에는 김씨가 직접 참여했다. 유명 작가인 아내가 작품에 함께 하면서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김은희 씨가 제게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리바운드'는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오빠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이 영화를 할 거라고도 했죠. '리바운드' 편집본을 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는 오빠의 대표작이 될 거라고요."

장 감독은 극중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강양현 코치로 분한 배우 안재홍을 두고는 "그만의 디테일과 캐릭터가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안재홍의 과거 작품 '족구왕



(2014)을 예로 들며 '송강호, 이성민 배우도 할 수 없는 배역'이라면서 "안재홍이 가진 작품에 대한 태도, 인간적인 겸허함, 이런 부분이 저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거 같다"고 했다.

"저는 안재홍의 작품을 좋아하고, 그의 캐릭터도 좋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웬지 그런 통통한 사람이 살고 있을 거 같지 않아요? 어쩌면 배우 같지도 않고, 그가 가진 묘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재홍한테 '리바운드' 시나리오를 주게 됐고, 사흘 만에 하겠다는 연락이 왔죠."

영화 '리바운드'에는 농구 경기 장면이 꽤나 많다. 경기 장면이 많다는 것은 배우들이 농구 연기를 위해 들인 공이 만만치 않았음을 의미한다. 극중 부산중앙고 농구부 선수를 연기한 이신영, 정진운, 김택 등은 촬영 두 달 전부터 맹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우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합숙하면서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촬영

기간 농구 장면을 계속 찍다 보니 나중에는 농구가 많이 늘었다더라고요. (웃음)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 때 실제 선수들처럼 배우들도 점점 살이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장 감독은 작품 속 명대사로 꼽히는 '농구는 멈춰도 인생은 멈추지 않는다'에 담긴 나름의 의미도 설명했다. 극중 강양현 코치는 전반을 마치고 후반을 준비하는 부산중앙고 농구부 선수들에게 이 대사를 전하며 승패에 대한 부담을 벗어나 경기 자체를 즐길 것을 당부한다.

"그대사는 제가 쓴 것인데요. 한국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서 과연 프로에 진출하는 선수는 얼마나 될까요. 3%나 될까요? 학생들이 청춘을 바치는데도 말이죠. 어떤 일이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로 먹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지막 직업이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BTS 슈가, 아이유와 3년 만에 협업...7일 선공개곡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오는 7일 첫 솔로 음반 'D-데이'(D-DAY)의 선공개곡 '사람 Pt.2'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5일 밝혔다.

'사람 Pt.2'는 슈가가 2020년 5월 공개한 두 번째 믹스테이프(비정규음반) 'D-2' 수록곡 '사람'의 연작격 노래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로 인한 감정을 슈가만의 감성으로 풀어낸 곡이다.

특히 가수 아이유가 이 노래에 피쳐링으로 참여해 관심을 끈다.

슈가는 2020년 5월 아이유의 '에잇'에 프로듀싱과 피쳐링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당

시 '에잇'은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쓰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두 사람의 협업은 그 이후 3년 만이다.

빅히트뮤직은 '사람 Pt.2'에 대해 "뽐뽐 리듬을 중심으로 슈가의 랩과 아이유의 청아한 음색이 조화를 이루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슈가가 어거스트 디(Agust D) 명의로 발표하는 이번 음반 'D-데이'는 믹스테이프 '어거스트 디'(Agust D)와 'D-2'에 이은 어거스트 디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이다. 슈가는 전곡의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을 했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런 사람과 만나라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 기준 잡힌 인생을 살 것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다.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하는 사람과 만나라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침묵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 멀리 있는 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좋은 글 중에서>>

며칠 전 아는 분의 블로그 공간을 찾았다 만난 묵상의 글이다. 글쓴이의 이름도 없이 오가는 <<좋은 글 중에서>>란 글을 여기저기서 만날 때면 더욱 귀히 여겨진다. 얼마나 좋은 글이면 주인 없이도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읽힐까 싶어서다. 이 귀한 글을 만

나며 하루 온종일 떠올리며 묵상했던 글이다.

가끔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아는 분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몇 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 집으로 오는 길은 무엇인가 뿌듯하고 넉넉한 느낌이 든다. 바로 마음속에 행복이 꼭 차오르는 것이다. 또한, 다시 그 사람과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사람이란 남·여·노·소 없이 그 느낌이 오래도록 남는다. 어제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말하고 내일의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참으로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만난다.

꿈을 가진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남의 것을 좇지 않는다. 자신의 삶 속에서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내일의 꿈을 잊었거나 잃어버린 이들이 많다.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자신이 선택했다면 먼저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가야 할 일이다. 그 일에 대해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먼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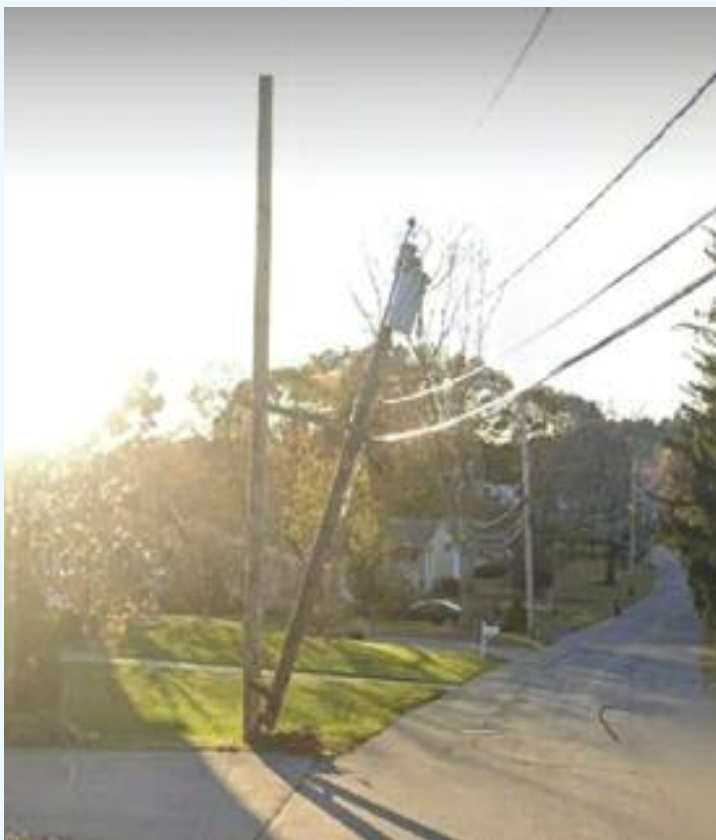
자신을 믿어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나 자신을 믿어주는 그 일이 바로 남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이유이다. 설령,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열심과 성실로 노력했던 그과정의 시간은 내게 값진 까닭이다.

결에 어릴 적 친구가 산다. 어릴 적 자라온 가정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게는 이 친구가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자라며 어려움 없이 부모 형제의 따뜻한 사랑과 교육 아래 남부럽지 않게 자랐다. 결혼 후 물질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의 남편을 만났지만, 자상하고 성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남편을 둔 것을 늘 감사하게 여겼다.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데는 가족의 힘인 세 아이와 남편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친구는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서 남편과 함께 곳곳하게 열심과 성실과 인내로 오늘의 가정을 지켜온 것이다.

삶이란, 생각처럼 마음처럼 그리 녹녹치 않음을 깨달아 간다. 그렇기에 삶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신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

별히 유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가끔 '내게 진정한 멘토(Mentor)는 있는가?' 하고 나 자신에게 물을 때가 있다. 이 물음을 오래도록 묵상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몇 스치고 지난다. 그 귀한 분들이 곁에 몇 있다는 것만으로도 넉넉해지는 가슴을 만나다. 굳이 말이 아니어도 알아들 수 있는 마음과 가슴에서 울리고 공명하는 일 앞에 무엇을 더 바랄까.

언제 만나도 맑은 표정과 밝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석 같은 사람 말이다.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은 경험으로 알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도 '이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인생일까. 문득, '나라는 사람이 궁금해진다. 지금 나는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고 묻는 것이다. 그저, 하늘이 주신 樂天知命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생김 모양과 색깔과 소리대로 사는 오늘이면 좋겠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덧칠과 덧대기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도 별 무소용이다. 여름이 지나갈 무렵이면 다시 갈라지고 패인다. 그렇다고 해마다 갈아 엮고, 포장할 수 없는데니 그게 문제일 게다. 적잖은 돈이 드는 일텐데, 예산이 넉넉치 않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사는 렉싱턴엔 아직도 낡은 전봇대를 쉽게 본다. 아스팔트 길가로 나란히 서있는데, 전기줄엔 참새떼가 날아와 앉아 지저귌 수도 있다.

... 전봇대에 참새들도 하품을 하는지 짹짹거리다

바람은 동네 한바퀴를 돌며 신이났는지 새싹 하나를 잡고 춤을 춘다

(남해란, 나른한 봄날 중에서)

우리집 강아지 송이를 산책 시킬 적이다. 우리 옆동네에서 낡은 전봇대를 보았다. 전선주는 오래되어 이미 얽은 회색으로 변색되었고, 상당히 기울었다. 밑동은 이미 지탱할만한 힘이 없는 거다. 임시방편인데, 지지할 수 있는 덧대기 기둥을 세우고, 나무로 연결되었다. 새 전선주를 세우기엔 형편이 넉넉치 못한 모양인게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선주에 덧대는 것과 같을 수도 있겠다. 땀쟁이, 솔이나 냄비따위 중 뚫어진 그릇을 메꾸는 직업이다. 영어로는 Tinker라 하는데 텅 커벌 할 때 그 텅커가 맞다. 옛날에

는 제법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에야 보기 찾아볼수 없는 직종이다. 이젠 냄비나 솥에 구멍이 나면 버리고 새로 구입하기 때문일게다.

전봇대나 법령이나 세월이 흐르면 낡고 변한다. 따라서 고쳐야 하고, 개정해야 마땅하다. 없애기도 한다만 땀질하기도 한다. 백발이아, 물론 염색하든지 말든지.

오늘 줄문은 시민고발문이 되었다.

http://www.holybible.or.kr/B_GAE/cgi/bibleftxt.php?VR=%9&V L=23&CN=41&PN=7&CV=99&KY=%b6%ab%c1%fa+%&SS=0

격려하며 이르되 땀질이 잘 된다 하니 (이사야 41:7)

고등학교 동창이 있다. 어릴적 부터 그 친구 유난히 머리가 희었다. 새치 단계도 넘어섰으니 오죽 했으면 별명이 백발이었다. 다른 친구의 짓군은 농이다. 차라리 검은 머리를 다 뽑아라. 그리고 백발만 남으면 검은색으로 염색하라. 듣던 모두가 박장대소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구두약

칠 하라는 조언이 아니었으니 천만 다행이라 할까. 염색은 덧칠이라 할 수도 있겠다. 색을 덧입히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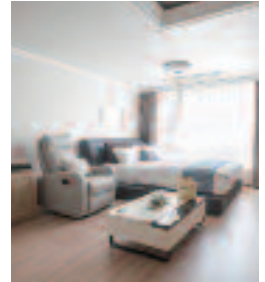
보스톤 아스팔트길이 그러하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도로 보수 공사가 열을 낸다. 겨우내 망가진 탓에, 패인 부분은 메우고, 갈라진 건 땀질을 하는거다. 그러나 그것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 흉터 최소화한 갑상샘암 치료법은 무엇?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갑상선센터의 도움을 받아 환자·보호자 사례에 맞춰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되는 핵심 정보를 알아보려고 한다.

환자·보호자는 질병 앞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적절한 진료과와 병원, 치료법을 결정해야 할 때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고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에 가길 원하지만, 선별해내기 쉽지 않죠. '이럴 땐 이 병원' 은 이런 이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환자의 궁금증
최근 갑상샘 초음파검사와 세표조직검사 결과 갑상샘 유두암을 진단받은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병원에서 로봇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목에 흉터가 남지 않는 건 좋아보였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고 치료 효용성에도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의사의 한마디
: 중앙대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송라영 교수

갑상샘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특히 갑상샘은 눈에 잘 띄는 목 한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수술 범위를 잘 결정해야 해요. 수술 범위는 세부 암의 종류와 크기, 결절 상태,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후가 좋은 1cm 미만의 미세 유두암이면 서 위치가 나쁘지 않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초기일 경우 추적관찰을 하며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수술 범위는 전절제술과 반절제술(엽절제술)로 나뉩니다. 전절제술은 갑상샘 좌우 양쪽과 그 사이 조직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인데, 남은 갑상샘이 없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방사성 요오드 요법을 시행해 재발률을 낮출 수도 있어요. 반면 반절제술은 암이 침범한 갑상샘 한쪽만을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유두암이나 양성 종양일 때 시행하죠. 반절제술의 장점은 남은 갑상샘이 기능을 일부 유지할 수 있으며 수술 합병증의 위험

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수술 방법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갑상샘암 수술법은 크게 일반 절개수술과 내시경절제술, 다빈치로봇수술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목의 흉터 등을 고려해 내시경과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모든 갑상샘암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절개수술을 시행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빈치로봇수술은 로봇을 이용한 내시경적 수술법으로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미용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개수술에선 흉터가 남는 일이 불가피하지만, 로봇수술의 경우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직접 수술 할 때 생길 수 있는 손 떨림도 보정이 되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죠.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수술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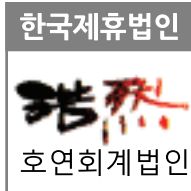
갑상샘 수술은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환자의 선호도를 감안해 수술법과 절제 범위를 판단해야 하죠. 필요 이상으로 갑

상샘을 다 제거하는 과잉 수술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을 할 때 최대한 신경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성대를 조절하는 목소리 신경인 '되돌이후두신경' 이 갑상샘 기도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이죠. 수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감과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술 흉터 최소화한 갑상샘암 치료법은 무엇?"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 만찬 파티에 초대합니다.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Apr 15, 2023 (Saturday) 6 PM

**The UMass Lowell Inn & Conference Center
50 Warren St. Lowell, MA 01852**

Ticket : \$100.00 PER PERSON

Contact: 781.248.5546 978.828.1383

“ 평화의 땅, 평화의집 엘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Sharing peace. Sharing God's blessing.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cfm.org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Contact: 781.248.5546 978.828.1383 www.naicfm.org

Date: Apr 15, 2023 (Saturday) Time: 6 PM
The UMass Lowell Inn & Conference Center
50 Warren St. Lowell, MA 01852



NAIFCM 국제선교
BOSTON CHAPTER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Apr 15, 2023 (Saturday)
Time: 6 PM

The UMass Lowell Inn & Conference Center
50 Warren St. Lowell, MA 01852

\$100.00 PER PERSON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예수 다시 살아셨네

2023년 4월 9일, 오전 6시

설교: 박도술 목사, 장소: 성요한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나사렛사람교회, 내슈아현마을교회, 뉴햄프셔감리교회, 뉴햄프셔한인교회, 로드아일랜드감리교회, 로드아일랜드제일한인교회, 로드아일랜드중앙한인교회, 무지개연합감리교회, 밀알교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보스턴장로교회, 보스턴감리교회, 보스턴 조아블교회, 보스턴늘푸른교회, 보스턴 디딤돌교회, 보스턴서부장로교회, 보스턴성결교회, 보스턴 한울교회, 보스턴서온성교회, 보스턴제일교회, 보스턴주님의교회, 보스턴중앙교회, 보스턴필그림교회, 보스턴한인교회, 보스턴한인연합교회, 북부보스턴연합감리교회, 비전교회, 새빛교회, 생명의길장로교회, 성요한연합감리교회, 순복음보스턴교회,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실로암 교회, 라이코스 교회, 안나목연합감리교회, 영방교회, 우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워싱턴프린티어교회, 뮌헨한인교회, 은혜진리교회, 임마누엘연합교회, 좋은감리교회, 지구촌발주교회,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케임브리지한인교회, 권지영생 장로교회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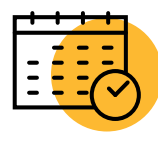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